

의미군과 발화의 재구조에 의한 고등학교 영어 읽기와 듣기의 수준별 통합 지도

이 순 범
군산제일고등학교

The proficiency-based and integrated teaching of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listening based on sense group and utterance restructuring

Sunbeom Lee
Kunsan Jeil High School
LSB610@Yahoo.co.kr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possibilities of the proficiency -based and integrated teaching of High School English reading and listening based on sense group and utterance restructuring. The proficiency -based and integrated listening and reading activities in stages are as follows. Step1, students fill in the blanks with strong or weak sounding word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Step2, speak along (track) based on restructuring and post-lexical phenomena while listening to the sentence. Step3, read and understand directly the passage, which have been marked the differentiated places where a native speaker of English would be at all likely to pause. Students need to listen to spoken English, so they recognize words in wrtten and spoken form. They must be familiar with suprasegmental features, stress and rhythm, and post-lexical phenomena during reading activities.

I. 서론

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영어과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중심의 영

어교육, 의사소통 능력을 증시하는 영어교육, 활동과 과업중심의 영어교육,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교육, 국가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영어교육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실용영어와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중심의 영어교육이 강조된 7차 교육 과정에서 고교 영어교육은 여전히 독해위주와 입시위주의 '외발교육'에 그치고 있다. 집중적인 독해 훈련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리를 내거나 듣지 않고 글자만을 통한 독해훈련이 주를 이루다 보니 읽는 것과 듣는 것, 의미과약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의사소통능력을 증시하는 영어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해와 듣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는가? 6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이해(듣기, 읽기) 기능'과 표현(말하기, 쓰기) 기능'으로 나눈 다음 '이해 기능'인 듣기와 읽기 학습을 한 다음에 '표현 기능'인 말하기와 쓰기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즉 듣기와 말하기를 읽기보다 먼저 할 수 있고, 또 듣고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해 능력의 발달은 청해 능력의 발달을 전제로 하고, 청해 능력의 발달과 동시에 독해 능력의 발달을 위해 독해내용에 대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동시에 따라 연습(mirroring or shadowing)을 하고 받아쓴다면, 영어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점차

소리 말의 흐름에 따라 의미군(sense group)을 인식하게 되 자연스럽게 우리말에서 생성된 리듬(syllable timed rhythm)의 벽을 깨고, 영어의 강박 리듬(stress timed rhythm)과 억양 단위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내용어와 기능어를 중심으로 받아쓰기와 따라 읽기를 다르게 지도하고 영어의 강박 리듬에 따라 의미군의 재구조 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후어휘 음운변화를 억양, 연음 및 속음에 따라 수준별로 지도한다면 듣기와 독해를 수준별로 통합지도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영어 교육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독해 지문을 의미군과 발화의 재구조와 후어휘 음운현상을 바탕으로 직독 직해와 직청 직해를 어떻게 통합해서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의미군과 발화의 재구조화 및 후어휘 음운현상

Jensen(1993)은 발음에 따라 두뇌의 생각하는 소리를 1차원의 발음, 생각하는 소리를 입으로 발화될 때 소리의 규칙에 따라 단어들을 모아 놓은 사전의 소리를 2차원의 발음(lexical pronunciation), 입으로 발화될 때의 소리를 3차원의 발음(post-lexical pronunciation), 공기로 전달이 되는 소리를 4차원의 발음으로 분류했다. 이 때 3차원의 발음은 호흡군(Breath Group) 혹은 의미군(Sense Group), 음조단위(Tonal Unit) 및 운율 층위단위(Prosodic Hierarchy)로 발화된다. 그러한 영어의 발화는 강박을 중심으로 재구조화(Restructuring) 되고 다양한 후어휘 음운변화(Post-lexical phonological phenomena)가 있게 되어 음절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영어듣기에 어려움을 준다

2.1 Sense Group

현재 쓰이고 있는 영어 문장을 나누어 보면, 2-5개의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 도막말(마디말)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의미 기능구', 간단히 '의미구(sense group)'라 한다. 의미구는 문장보다는 짧고, 단어보다는 긴 의미전달 단위다. 이러한 의미구에 따라 끊어 읽기 연습은 영어식 어순 감각을 길러줌과 동시에 문장의 마디를 나누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직청 직해, 직독 직해능력이 길러진다. 의미구는 문장에서 숨 쉬는 호흡군으로 연음현상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듣기 및 연음을 습득하게 한다.

의미군의 단위가 길고 짧은 것은 듣기와 읽기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Yorkey(1970:91)는 의미 단위를 두는 휴지를 다음 세 가지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1) a. 속도가 느린 독자

Being / able / to / read / by /phrase /instead /of /by /single/ words /resu /from /practice.

b. 보통의 속도인 독자

Being able / to read / by phrases / instead o / by single words / results / from / practice.

c. 속도가 빠른 독자

Being able to read by phrases /instead of by single words /results from practice.

2.2 Sense Group and Post-lexical Phenomena

의미군과 음운변화는 연음에 의한 영어 단어의 자연스러운 재분절과 음조단위와 운율층위에 의한 재구조화, 그에 따른 후어휘 음운변화다. 후-어휘음운론(Post-lexical Phonology)적 상황은, 탄설음화(wait a minute), 유/무성음화(Never fail to come with it. Please breathe fresh air.), 기식음화(Keep it in the box), 비음동화(Neck and neck), h-약화/탈락(an hotel), 구개음화(He speaks English)등이다.

영어는 적절한 곳에서 '쉬어가기'(pause)를 해야한다. 그런데 pause와 pause사이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함께 뭉쳐서 연음이 되면서 후어휘 음운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영어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서로 연결되는 단어들이 하나의 생각, 또는 의미를(마치 한 단어처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호흡군(breath group), 혹은 의미군(sense group)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앞 절(2.1)에서 언급했다.

Prator(1972)는 다음 (2)와 같이 Sense Group을 통해 외국인이 올바른 영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영어를 발화할 수 있도록 Sense Group내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떼어 읽지 않고 강세를 중심으로 이어서 한 숨에 발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

(2) a in the morning /ɪnðə'mɔ:rnɪŋ/

b an English class /ən'ɪŋɡlɪʃ'klɑ:s/

c. in a minute /ɪnə'mɪnɪt/

d. at the drugstore /ətðə'drʌɡstɔ: /

e. She has told me /ʃi:zə'təʊldmi/

f. of the lesson /əvðə'lesən/

g. of the day /əvðə'deɪ/

- h. in a bus / mɒbəs/
- i. is a friend / ɪzəfrɛnd/

- c. [arvbɪndɛərən] [dɒndæt] ·후어휘 음운변화
→[bɪndɛərən dɒndæt]: 약음 탈락과 동화 현상
→[bɪncɛər dɒnæt]: /ð/와 /n/탈락

2.3 Utterance Restructuring and Post-lexical Phenomena

발화는 접어군의 형성에 의하여 층위가 형성된다. 이 때 문장은 재구조를 일으킨다 Hayes(1984)는 영어의 경우 리듬형성은 4보 간격의 강박부여가 가장 리듬적이라고 했다. 접어군은 이 양호리듬(Eurythmy)의 원리에 의하여 재구조화된다. 이 때 접어는 그 접어화 방향에 재조절된다.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litic)는 접어, H(ost)는 주체어, →접어화 방향, CG는 Clitic Group의 약자임)

- (3) a. 후접화 = C → H ([C [H]CG]: [There was an [old]]CG)
- b. 전접화 = H ← C ([[H]C]CG [[boys] will]CG)

영어 발화는 전접이 많이 일어난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 강박이 되면, 뒤에 오는 기능어인 접어들은 전접한다(김기섭, 1998). 밑줄 친 기능어, 즉 접어는 앞 강세에 전접하여 하나의 리듬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 (4) a. [What is the name] [of the man] [in a hat]?:
[강][약약강][약약강][약약강]
- b. [What is the] [name of the] [man in a] [hat]?: [강약약][강약약][약약약][강]
- c. What is the/ name of the/ man in a/ hat?
[hwarɪzðə] [neɪmɒvðə] [mænɪnə] [hæt]

what, name, man 그리고 hat에 강세가 놓여 강박중심의 접어군을 형성하게 된다. is the와 of the 및 in a는 [hwarɪzðə] [neɪmɒvðə] [mænɪnə]처럼 연음되어 음절이 재조직되고 후어휘 음운변화가 있게 된다.

다음(5)는 강박을 중심으로 접어군의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후어휘 음운변화가 한국인들의 영어 듣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순범, 2003)

- (5) a. [I've been]c [there]c [and done that]c
- b. [I've been there and]c [done that]c : 접어군의 재구조화

강세를 받지 않는 I've의 /ai/와 there and에서 /ən/의 /ə/는 탈락이 되고 I've의 /v/는 been의 /b/에 동되어 탈락된다 been there의 /ð/와 done that의 /ð/는 /n/에 영향을 받아 탈락이 되고 /n/은 /ɛər/와 /æt/의 절머리가 된다. there and에서 /n/은 /r/과 조음점이 유사해 탈락이 되어 결국 'I've been there and done that.'은 '빈네얼 던넬'으로 들리게 된다.

III. 영어의 독해와 듣기의 수준별 통합 지도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지역별, 학교별, 학급별로 다양하다 모두가 영어를 정복하려고 하는 동기는 같지만 출발점은 제각기 다르므로 학생들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기(mirroring or shadowing)와 받아 쓰기를 수준별로 달리 지도할 수 있다. 영어단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테이프에 나오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중요 내용어와 숙어들을 중심으로 독해 내용을 한 번 검토한 후에 수준별 지도 절차에 따라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받아쓰기 지도에서도 강하게 들리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받아쓰기를 지도하고, 중위권 학생들은 짧고 약하게 들리는 기능어를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내용어와 기능어를 하나로 묶어 강박리듬에 따라 받아쓰기를 지도할 수 있다. 영어 수준이 '하(Beginning Students)'수준인 학생은 교재를 보면서 듣기, '중(Intermediate Students)'수준의 학생은 교재를 보면서 따라하기, 그리고 '상(Advanced Students)'수준의 학생은 교재를 보지 않고 따라하도록 지도할 수도 있다. 교재나 과제는 교과서도 좋지만 현실적인 영어가 사용되는 생활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청자는 교재에서 듣게 될 것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들은 것과 비교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준별 독해지도는 독해 지문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독해지문을 가르칠 때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의미단위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영어식 어순에 따라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때 발화의 단위와 의미단위를 비교하며 듣기지도를 연계할 수 있다. 다음은 같은 독해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듣기와 독해를 수준별 로 통합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절차

를 제시한 것이다.

(6) a. Beginning Students

- step1) 내용어(강박)를 중심으로 빈칸 채우기
- step2) 교재를 보면서 듣기
 - 억양을 바탕으로 재구조화와 음운변화 지도
- step3) 작은 단위의 의미군에 따라 직독 직해

b. Intermediate Students

- step1) 기능어(약박)를 중심으로 빈칸 채우기
- step2) 교재를 보면서 따라하기(mirroring or shadowing)
 - 연음을 바탕으로 재구조화와 음운변화 지도 -약화+탈락
- step3) 중간 단위의 의미군에 따라 직독 직해

c. Advanced Students

- step1) 내용어(강박)와 기능어(약박) 빈 칸 채우기
- step2) 교재를 보지 않고 따라하기(mirroring or shadowing)
 - 속음을 중심으로 재구조화와 음운변화 지도 -약화+탈락 / 강세+리듬
- step3) 큰 단위의 의미군에 따라 직독 직해

학생들이 듣기와 의미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강세 단어와 강세 없는 단어를 잘 구분했는지, 정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발화 단위와 의미단위를 수준별로 재구조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동화, 탈락 등의 후어휘 음운현상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은 상급수준(High Level)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듣기와 읽기의 통합지도 자료다.

(7) step1) 내용어(강박)와 기능어(약박) 빈 칸 채우기

strong sounds와 weak sounds가 마치 파도처럼 교대로 나타나는 리듬을 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빈 칸을 채운다

() families () South () () Korea
 enjoyed precious () () each other, eating and
 talking () () lost () But () ()
 () group () North () toasted () ()
 at being able () see () other () () than
 () years, () minds () () () imminent
 (). Since () () Korea () () hostile
 (), () relatives () () () that
 () () see () () hear () each other
 after they part (). Even () () precious
 () visit, () reunited () had () ()
 couple () hours () () to spend alone ()
 each (). () tens () thousands () divided
 families () () waiting () () reunited ()
 hoping () () visits, () limited, will
 lead () many more. (CNN NEWS)

step2) 교재를 보지 않고 따라하기

상급학생들은 원어민의 끊어 읽기(pause)에 따라 강박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6)에서 제시한 것처럼 강박 리듬과 속음을 중심으로 재구조화와 약화+탈락, 강세+리듬 등 후어휘 음운변화를 통합 지도할 수 있다. 다음은 듣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발화의 재구조화 및 후어휘 음운현상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

The tens of thousands of divided families / who are waiting to be reunited / are hoping / that these visits, / however limited, / will lead to many more.



<그림 1> The tens of thousands of divide families who are waiting to be reunited a hoping that these visits, however limited, w lead to many more

families who are에서 who, 와 are는 모두 강세를 받지 않고 강박인 families에 전접 되어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waiting to be에서 waiting은 -t-를 /r/음으로 발음하는 미국 영어의 대표적인 flap현상으로 유향 되어 약음인 to be

와 함께 [wéringtubi]로 발음된다. however와 limited가 연음 될 때 강세 충돌이 일어나 [háuevəlímítid]로 발음 되 제1강세가 hów-로 이동한다. 엄밀층위가설(strict layer hypothesis)에 의해 삽입구로 쓰인 however limited 앞에 오는 these visits는 억양구를 이룬다

step3) 큰 단위의 의미군에 따라 직독 직해

의미군의 단위가 길고 짧은 것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은 영어실력이 상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step1)과 step2)를 지도하고 같은 독해 지문을 의미군에 따라 직독 직해를 할 수 있도록 원어민(Native speaker-Dale Larson)과 함께 수준별 끊어 읽기를 표시한 것이다. ①은 '하'수준의 학생들에게, ②는 '중'수준의 학생들에게, ③은 '상'수준의 학생들에게 맞게 끊어 읽기를 표시한 것이다. 똑같은 내용의 독해 지문을 ①은 27번, ②는 18번, ③은 12번으로 수준별로 끊어 읽기를 달리 지도할 수 있다

Divided families①/ from South and North Korea①
 ② / enjoyed precious moments①/ with each other,①
 ②③ / eating and talking about the lost years. ①②
 ③// But even as the group in North Korea ①②/
 toasted their happiness ①②③/ at being able to see
 each other①/ after more than 50 years, ①②③/
 their minds wandered to the imminent partung ①②
 ③// Since the two Koreas still maintain hostile
 relations, ①②③/ these relatives have no guarantee
 ①②③/ that they will see①/ or even hear from
 each other ①②/ after they part Friday ①②③//
 Even during the precious 4-day visit,①②③/ the
 reunited families ①/had only a couple of hours① a
 day①② / to spend alone ①with each other. ①②③
 // The tens of thousands ①of divided families ①②
 / who are waiting to be reunited ①②/ are hoping
 ①②/ that these visits,①②③ / however limited, ①
 ②③/ will lead to many more. (CNN NEWS)

IV. 결론

언어가 원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는 통합적인 것이라는 데서 듣기와 읽기의 통합지도가 가능하다. 발음에 대한 자각을 높임으로써 청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어와 기능어 받아쓰기(dictation), 들

고 동시에 따라하기(tracking or shadowing)와 영어식 어순에 따라 직독 직해를 할 수 있는 의미군 단위로 끊어 읽기를 수준별 듣기와 읽기 통합지도 방법으로 활용해 보았다. 이것은 소리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소리와 의미가 동시에 연결되는 수준에서 독해가 가능하므로 의사소통능력을 증시하는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의미단위의 길이와 강하고 약하게 들리는 내용어와 기능어에 따라 받아쓰는 어휘의 수를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교재를 따라 읽음(shadowing)때 영어의 강박 리듬에 따라 통사구조와는 다르게 재구조화되는 발화의 단위와 억양과 연음, 속음에 따라 지도하는 후어휘 음운현상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 수준별 듣기와 읽기의 통합지도가 가능하다. 특히 독해지문을 들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즉각적으로 따라하는 시도를 할 때 밀도 있는 언어 경험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영어의 억양과 강세, 리듬에 초점을 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언어 발달을 이룰 수 있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 영어듣기와 읽기를 수준별로 통합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독해지문에 대한 의미단위를 상, 중, 하 수준별로 재구조화 하고 수준별 의미단위에 따라 원어민의 음성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김기섭, *영어음운학용어*. 한국문화사, 1999
- [2] 김기섭, 임운. *음향분석과 영어 발음 교육*, 한국문화사, 2002
- [3] 박주현, *영어의 리듬과 운율이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4] 이순범, *영어 발화의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4] Avery, P, & Ehrlich, 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5] Crystal, D.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Lond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6] Jensen, J. T, *English phonology*, Philadelphia: John Benson Publishing Company, 1993
- [7] Nespor, M. & Irene Vogel *Prosodic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Holl and Riverton, U.S.A., 1986